

혼성어 개념에 대한 재검토

양정정(楊靜靜)*

〈차 례〉

1. 서론
2. 혼성어 개념에 의미 변화의 중요성
3. 혼성어의 특징 검토
4. 혼성어의 개념 재정립
5. 결론

[국문초록]

혼성어는 두 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혼합된 뜻을 가지게 된 낱말을 말한다. 혼성어의 형성이 현재 매우 왕성하게 진행 중인 단어 형성 과정이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혼성의 형성 과정에 동시에 '절단'과 '결합'이라는 두 가지 형식적 조작을 거쳐 형성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합성' 또는 '파생'이라는 단어 형성 기제와 다른 양상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혼성을 새로운 단어 형성 기제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그 동안의 대부분 논의에서는 주로 혼성어가 형성될 때 수반되는 형태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혼성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새로운 의미의 파생을 부차적인 것으로 처리했다. 혼성을 새로운 단어 형성 기제로 인정하려면 혼성어가 새로운 의미 변화가 이루어진 새로운 단어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혼성을 새로운 단어 형성 기제로 인정하면서 의미 변화를 부차적인 것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형태적 특성에만 집중하여 혼성어를 정의하면 혼성어가 다른 개념들과 혼동되어 있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혼성어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는 의미 변화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떡방'과 같은 신어는 '라볶이'처럼 처음 생성될 때부터 새로운 의미로 생성된 것은 아닌 듯하다. 본고에서는 혼성어의 형성 과정 중 일차적인 의미 변화를 중요시하며 악어로 형성된 후 의미 확대가 일어난 경우를 혼성어로 보지 않기로 한다.

[주제어] 단어 형성 기제, (일차적) 의미 변화, 혼성어, 악어, 입력형, 형성 과정, 결합 위치, 출력형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 수료

1. 서론

본고는 혼성어 형성 과정에 수반되는 의미 변화를 중요시하여 혼성어를 규정하는 중요성을 밝히고 기존 연구에서 형태적 특성에만 집중하여 혼성어를 다루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단어 형성 기제로서의 혼성어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혼성어는 두 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혼합된 뜻을 가지게 된 낱말을 말한다. 혼성어의 형성이 현재 매우 왕성하게 진행 중인 단어 형성 과정이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하지만 그 동안의 대부분 논의에서는 주요 혼성어가 형성될 때 수반되는 형태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혼성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새로운 의미의 파생을 부차적인 것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처리하는 데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혼성어의 형성 과정에 동시에 ‘절단과 결합’이라는 두 가지 형식적 조작을 거쳐 형성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합성’ 또는 ‘파생’이라는 단어 형성 기제와 다른 양상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러한 이유로 기존의 단어 형성론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혼성어가 합성 또는 파생과 구별되는 새로운 단어 형성 기제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어떤 문법 현상이 단어형성론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해당 문법 현상의 결과물이 새로운 단어인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의미의 변화가 포착되지 않는 형식적 변화는 해당 과정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이 아니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혼성을 새로운 단어 형성 기제로 인정하면서 의미 변화를 소홀히 여겨 같듯이 생긴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형태적 특성에만 집중하여 혼성어를 정의하면 결과는 혼성어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다른 개념들과 혼동되어 있으며 서로간의 차이점이 점점 모호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김병건(2017)에서는 ‘절단과 합성의 동시 적용’이라는 조어 방법만으로 혼성어를 규정해 아예 혼성어를 두음절어, 약어 등과 같은 것으로 간주했듯이 형태적 특성에만 집중하고 의미 변화를 소홀히

여기면 혼성어는 점점 다른 개념들과의 차이가 없어지고 심지어 혼성어라는 용어는 불필요한 개념이 될 처지에 빠질 수 있을 듯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형태적 특성에만 집중하여 혼성어를 정의한 것보다 혼성어 형성에 수반되는 의미 변화를 중요시하면서 혼성어에 대해 재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선행 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혼성어 형성 과정에 수반되는 의미 변화를 혼성어의 판별 기준으로 삼아 혼성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 혼성어로 보고 있는 ‘떡방’이나 ‘엄친아’처럼 의미 변화의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곧 혼성어와 관련되는 의미 변화라는 기준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기존 논의가 의미 변화라는 기준 설정에서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2장에서 혼성에 수반되는 의미 변화에 중점을 두어 혼성어를 정의해야 할 중요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3장에서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논하면서 혼성어의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 4장에서 ‘떡방’과 같이 처음 생성될 때부터 새로운 의미로 생성된 것은 아니라 약어로 형성된 후 의미 확대가 일어난 경우를 혼성어로 보아야 하는지를 검토하면서 혼성어 개념에 있어서 의미 변화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혼성어의 개념을 재정립할 것이다.

2. 혼성어 개념에 의미 변화의 중요성

본 장에서 혼성어 개념에 있어서는 혼성어의 형성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미 변화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중요성은 단어 형성 기제로서의 전체 그리고 혼성어가 다른 인접 범주와의 구분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단어형성 기제로서의 혼성어

혼성어는 기존 전통적인 문법에서 다루던 일반적인 단어 형성법인 합성, 파생과는 다른 형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합성과 파생이 원형식이 절단 없이 단어를 형성하는 데 반해 혼성은 원형식이 절단되어 단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합성이나 파생과 구별하여 별도의 단어형성법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한국어 단어 체계에서는 합성과 파생만이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한국어 형태론 연구에서 혼성은 파생과 합성에 비하여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이전에 발견된 혼성어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형성된 단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어서 한국어 단어형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박용찬 2008; 이찬영 2016 등).

그러나 최근 들어 혼성어 수가 크게 늘었고 이에 영향받아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새로 만들어 쓰는 혼성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신어 자료집에 따르면 신어에서 혼성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에는 27.22%, 2016년에는 19.03%, 2017년에는 27.66%, 2018년에는 31.5%, 2019년에는 32.7%에 이르렀다(편선영 2021: 2). 이는 과거에 한국어 단어형성법이라고 볼 수 없는 혼성어¹⁾가 이제 한국어 단어형성법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논의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혼성의 형성 과정에 동시에 ‘절단’과 ‘결합’이라는 두 가지 형식적 조작을 거쳐 형성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합성’ 또는 ‘파생’이라는 단어 형성 기제와 다른 양상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러한 이유로 기존의 단어 형성론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혼성어가 합성 또는 파생과 구별되는 새로운 단어 형성 기제로 인정해 왔다(박용찬 2008; 황진영 2009; 노명희 2010; 김계옥 2014; 임해연

1) 정원수(1992), 김정은(1995), 시정근(1998) 등 이른 시기의 단어형성론에서는 혼성의 방식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2015; 양명희·박미은 2015; 이찬영 2016; 이선영 2016; 김병건 2017 등). 박용찬(2008)은 본격적 혼성어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전의 표제어와 신조어에서 확인되는 혼성어를 바탕으로 한국어 고유의 단어 형성법이라고 볼 수 없었던 혼성이 한국어 단어 형성법의 한 유형으로 인정해야 할 만큼 정착돼 가고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이후의 연구 대부분이 그러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이루어졌다.

하지만 상술한 대부분의 논의는 혼성어의 형성 과정에서 수반되는 형태적 특성에만 집중했으며 의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혼성어로 간주된다는 논의도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이처럼 혼성어에 수반되는 의미 변화를 소홀히 여기면서 혼성을 새로운 단어 형성 기제로 인정하여 갈등이 생긴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송원용(2017: 111)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어떤 문법 현상이 단어형성론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해당 문법 현상의 결과물이 새로운 단어인가라는 점이다. 의미의 변화가 포착되지 않는 형식적 변화는 해당 과정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이 아니다.²⁾ 새로운 단어 이른바 신조어를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하기 위하여 만든 단어로 규정한다면 그럼 의미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 형태적 변이만 거쳐 형성된 단어들은 새로운 단어라고 볼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형태적 변화만 거친 단어들은 새로운 개념을 표시하는 새로운 단어라기보다는 기존의 단어에 대해 형태적으로 변화시킨 것 뿐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컴’이라는 단어는 ‘컴퓨터’와 완전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말로 단순히 형태가 형식적으로

2) 새로운 의미 변화 여부를 새로운 단어 형성 기제인지 여부의 관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합성어 중 두 어근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융합합성어만 의미 변화가 생긴 것이며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는 의미 변화를 발생하지 않다고 논의해 왔다. 하지만 본고에서 ‘의미의 변화’를 넓은 의미에서 파악해 ‘단어 형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 단위들의 의미만으로는 예측하거나 추론할 수 없는 의미’가 아니라 ‘단어 형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 단위들의 의미를 단순하게 합한 의미가 아니라 다소간 다른 의미로 나타난다’로 이해하고자 한다. 합성어 ‘책가방’으로 예를 들면 ‘책’의 의미와 ‘가방’의 의미만으로도 ‘책가방’의 의미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지만 ‘책가방’의 의미가 ‘책과 가방’이 아니라 ‘책을 넣어서 들고나 메고 다니는 가방’으로 이해한다면 의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즉 본고에서는 ‘합성어’, ‘파생어’, ‘혼성어’를 모두 ‘의미 변화’가 일어난 새로운 단어로 파악하기로 한다.

감소되었을 뿐이기에 새로운 단어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이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새로운 단어형성 기제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³⁾

따라서 혼성을 새로운 단어 형성 기제로 인정하려면 혼성어가 새로운 의미 변화가 이루어진 새로운 단어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 본고에서 혼성 과정에 의한 단어 형성은 오늘날 사람들에 의해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혼성은 새로운 단어 형성 기제로서의 자격에 대해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므로 의미 변화를 혼성어의 판별 기준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혼성을 새로운 단어 형성 기제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논의를 전개하려면 그 직접구성성분이 되는 요소에 어근 또는 접사의 범주를 부여하는 것이 선결문제이 될 듯하다. 즉 혼성어 ‘라볶이’를 형성하기 위하여 ‘라면’과 ‘떡볶이’로부터 절단되어 형성된 ‘라’와 ‘볶이’와 같은 혼성어의 형성 요소가 한국어 형태론 체계 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지니는가를 먼저 밝혀야 한다.

(1) 가. 지혜는 야식으로 (라면/*라)을/를 먹었다.

나. 라면땅-*라땅, 라면스프-*라스프, 비빔라면-*비빔라, 짬뽕라면-
*짬뽕라

(2) 가. 파파라치

나. 카파라치, 쓰파라치, 표파라치, 폰파라치, 노파라치, 식파라치
다. 파라치들의 모임, 파라치 공포증, 파라치 문화, 파라치의 종류

(1)은 곽유석(2017)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곽유석(2017: 17)에서 지적했듯이 이때 ‘라볶이’의 ‘라’는 (1가)에서 보듯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으며 (1나)에서 보듯 단어형성에도 생산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본고에서도 곽유석(2017)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이때는 ‘-라’를 형태소로 보기 힘든

3) 본고의 입장대로는 ‘절단어’, ‘두음절어’, ‘약어’ 등 의미 변화를 포착하지 않고 원형식의 단순한 줄입말의 형성은 새로운 단어형성 기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여기서 미리 밝힌다.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어떤 요소가 다양한 혼성어 형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형태소의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의 ‘-파라치’는 바로 그 예가 된다. ‘-파라치’의 경우는 ‘파파라치’로부터 절단된 후, 여러 단어와 결합하여 (2나)와 같은 혼성어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소의 형태론적 지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다.

지금까지 여러 논의는 ‘-파라치’를 접사적 성격을 지닌 요소로 인정해 왔다(최형용 2004; 박용찬 2008; 노명희 2011; 이찬영 2016 등). 이런 논의에서 이들 혼성어의 형성 요소를 접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이들 요소가 의존형태소처럼 단독으로 쓰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접미사처럼 어근 뒤에 놓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2다)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파라치’가 점점 독립적인 명사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파라치’ 등 혼성어의 형성 요소를 접사가 아니라 어근으로 파악했던 논의도 없지 않다. 이은섭(2007)에서 이들을 어근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의사 어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 강은경(2016)에서 ‘파편’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파편이 접사적 요소가 아니라 어휘적 요소로 어근이라고 보았다.⁵⁾

이 밖에 단어 형성의 반복적 패턴을 보이는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로 ‘단어형성 전용요소’로 보는 김창섭(1996), ‘어근의 접사화’로 보는 시정곤(2005), ‘의사 접사’로 본 송원용(2005), ‘절단 접사’로 본 양명희·박미은(2015) 등이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해 왔다.

본고는 혼성어의 형성 요소가 동일한 형태와 분포로 나타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형태적으로 이질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혼성어

4) 강은경에 따르면 ‘파편(splinter)’이란 용어는 영어에서 혼성어 형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언어 형태를 지칭하기 위해 Lehrer(1996)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접사나 결합형(combining form)과 구별하기 위한 명명인데 Bauer et al.(2013)을 포함하여 최근 영어 혼성어에 대한 논문이나 문헌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라고 밝혔다.

5) 강은경(2016)에서 파편이 접사적 요소가 아니라는 증거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는 파편은 접사들과 달리 결합하는 어기에 대해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즉 파편과 결합하는 요소가 절단형인 경우도 있지만 완전한 단어인 경우도 있다. 둘째는 파편이 다른 접사와 결합한다는 것이다. ‘빠순이’, ‘빠심’, ‘파라치들’ 등 단어를 보면 만약 파편이 접사라면 이런 형태들은 접사와 접사가 결합한 이상한 단어가 된다고 지적했다.

형성소에는 어근이나 접사로서의 지위를 적절히 부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단어 분석이 아니라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므로 혼성어의 형성 요소의 형태론적 정체성을 밝힐 필요성이 없을 듯하다. 이에 대해 일단 태도 표명을 보류하기로 한다.⁶⁾

2) 혼성어와 약어의 구분 문제

약어⁷⁾란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말에서 각 성분의 일부를 줄여 만든 말을 가리키며 그 하위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3) 가. 디카 ← 디지털 카메라, 갑분싸 ←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나. 학관 ← 학생회관, 남격 ← 남자의 자격

(3가)는 두음절어⁸⁾의 예시이다. 두음절어는 기존 단어 혹은 구 구성에서 첫 음절만을 취하여 형성된 단어를 말한다. (3나)는 첫 음절이 아닌 다른 음절이 새로운 단어의 형성에 참여하였다. (3가)와 같이 앞음절끼리 결합되어 형성된 것들을 두음절어라고 한다면 (3나)처럼 두음절어와 절단 음절 위치를 빼고 동일한 방식으로 형성된 것들은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두음절어에 있어서는 용어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⁹⁾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두음절어라는 용어의 부적절함을 지적

6) 이에 대해 후고를 기약한다.

7)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 보면 ‘준말’과 ‘약어’를 똑같은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것. ‘사이’가 ‘세’로, ‘잘가닥’이 ‘갈각’으로 된 것 따위이다’로 풀이하였지만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 ‘준말’과 ‘약어’라는 용어를 한쪽만 설명한 학자도 있고, 둘 다 동일하거나 통용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임옥정(2016)에서 ‘준말’과 ‘약어’의 개념을 학자별로 정리했다. (임옥정 2016: 5~8 참조)
본고에서는 ‘준말’은 ‘사이’가 ‘세’로 된 것처럼 한 단어 내에서만 음운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나는 개념이고 ‘약어’는 ‘국정 감사’를 줄여 ‘국감’으로 이르는 말처럼 두 개 이상의 단어나 구에서 ‘줄여 이르는 말’로 간주하기 때문에 혼성어의 인접 범위를 ‘약어’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외에 이선영(2016), 곽유석(2017) 등 논의에서 본고의 약어와 같은 개념으로 ‘약칭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8) 명칭의 문제에서부터 두음절어는 ‘두음절어/두(문)자어/두음어’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두음절어’를 사용한다.

하는 이유는 결국 (3나)와 같은 비두음절어¹⁰⁾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귀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두음절어는 상당히 생산적이어서¹¹⁾ 별도의 용어를 도입해 명명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두음절어라는 용어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정한다. 반면에 (3나)와 같은 예들은 두음절어에 비해 수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별도의 용어를 도입해 명명될 필요가 없고 이들을 약어로 처리하기로 한다. 즉 두음절어는 약어의 하위 유형으로 본다. 정리하면 본고에서 (3가)와 (3나)를 함께 묶어 ‘약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약어’가 혼성어와 동등한 층위에서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¹²⁾

다음과 같은 예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혼성어로 인정되고 있어 혼성어의 형식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 있다.

- (4) ㄱ. brunch(브런치) ← breakfast + lunch
 ㄴ. camcorder(캠코더) ← camera + recorder

- (5) ㄱ. 학숙사 ← 학교(學校) + 기숙사(寄宿舍)
 ㄴ. 군통령 ← 군대(軍隊) + 대통령(大統領)

9) 노명희(2010), 이찬영(2016) 등에서 두음절어를 설정한 반면에 이주영·김정남(2014), 이선영(2016), 이호승(2014), 김병건(2017) 등 논의에서 ‘두음절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들을 ‘두음절어’로 보지 않은 이유로 ‘공대(공과대학)’와 ‘한국(대한민국)’은 절단 음절의 위치를 제외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전자는 두음절어라고 한다면 후자들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제현(2010)에서도 두음절어 개념의 불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외에 ‘두음절어’가 가진 용어의 불원전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음절어’를 제안한 논의들도 있다(김계옥2014, 임해연2015, 이찬영2016). 또 김병건(2017: 172-173)에서는 이주영·김정남(2014)에서 ‘두자어’는 ‘ㄱ스, ㅋㄱ, ㅌ스, ㅌㅋ’과 같이 머리글자를 따라 만드는 단어들을 지칭하는 말로 보는 입장을 받아들이고 노명희(2010)에서의 ‘두음절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혼성어’를 제안했다.

10) 이제현(2010)에서 이들을 ‘선택어’라고 했다.

11)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신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두음절어는 전체 신어 개수의 2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곽유석(2017)에서 ‘내비 ← 내비게이션, 킴 ← 컴퓨터’와 같은 절단어도 약어의 하위유형으로 나뉘는데 본고에서 절단어는 한 단어 내부에서 발생한 형식 삭감으로써 새 단어를 만드는 형태론적 과정이며, 약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나 구를 줄여서 형성된 것이라 둘은 다른 양상을 보여 다르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절단어를 약어의 하위유형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6) ㄱ. 칼제비 ← 칼국수 + 수제비

ㄴ. 갈겹살 ← 갈비 + 삼겹살

(4)는 영어에서 만들어진 혼성어가 한국어에 단순 차용된 혼성어이고 (5)와 (6)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5)는 한자어로, (6)은 고유어로 형성된 혼성어들이다. (4), (5), (6)의 예들과 같이 두 개의 단어가 동시에 절단과 결합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지칭 대상을 가리키는 예들은 가장 전형적인 예로서 혼성어의 자격에 대해 의심을 받은 적이 없다.

약어도 동시에 절단과 결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혼성어와 공통점이 있는데 (3)의 약어를 보면 약어는 원형식으로부터 줄여서 쓰인 말로 의미 변화가 생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면에 혼성어는 새로운 의미의 파생이라는 점에서 약어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그 동안의 대부분 논의에서는 주로 혼성어가 형성될 때 수반되는 형태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혼성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새로운 의미의 파생을 부차적인 것으로 처리했다. 따라서 혼성어가 약어와 섞여 있는 논의도 흔히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들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판단이 다르게 나타난다.

(7) ㄱ. 갑분싸 ←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ㄴ. 금사빠 ← 금방 사랑에 빠진다

(8) ㄱ. 유티즌 ← 유비쿼터스 + 네티즌

ㄴ. 모티켓 ← 모바일 + 에티켓

(7)에 대해서 노명희(2010)는 두음절어로 간주한 반면에 이호승(2011), 김병건(2017)은 혼성어로 다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이호승(2011)과 김병건(2017)에서 ‘절단과 합성의 동시 적용’이라는 조어 방법만에 집중하여 혼성어를 규정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결과로 (7)의 예시에 대한

혼동이 나타난 것이다.¹³⁾

(8)의 예들은 황진영(2009), 노명희(2010), 김계옥(2014) 등에서 혼성어로 본 반면 남기탁(2013), 이호승(2014)에서는 혼성어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8)의 예들은 원형식과 축소어형의 의미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논의에서 동시에 절단과 결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앞 단어의 앞부분과 뒤 단어의 뒷부분이 결합된 형태적 특성에 집중하여 이들을 혼성어로 다루었다.¹⁴⁾

하지만 본고에서는 (8)의 예들은 혼성어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에 (8)의 예들을 혼성어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예들도 충분히 혼성어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9) ㄱ. 야설 ← 야한 소설
- ㄴ. 썩소 ← 썩은 미소

(9)의 예들은 (8)과 여러 측면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인 것들이다. (8)과 (9)은 다 원형식과 축소어형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원형식의 앞 단어의 앞부분과 뒤 단어의 뒷부분이 결합한 축소어의 형식을 갖는다. 본고에서 (8)과 (9)의 예들은 동일한 경향에 의한 것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8)의 예들을 혼성어로 본다면 (9)과 같은 예들을 혼성어로 보지 않은 이유가 없을 듯하다. 하지만 (9)의 예들은 지금까지 혼성어가 아니고 약어로 다루던 것들이다.

상술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형태적 특성에만 집중하고 의미 변화를 혼성어의 판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혼성어와 약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13) 기존 논의에서 (7)과 같은 예들을 두음절어로 다루어 왔다(노명희 2010; 한은실 2010; 이주영·김정남 2014; 김계옥 2014; 임해연 2015).

14) 한국어 형태론에서 ‘리뷰이(리만+떡볶이)’와 같은 앞 단어의 앞부분과 뒤 단어의 뒷 부분이 혼성된 AD형으로 전형적인 혼성어로 다루어 왔다. 혼성어의 형성이 AD형을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 인지언어학적 설명은 임지룡(1996)에서 제시한 ‘욕조 효과(bathtub effect)’로 기술할 수 있다. ‘욕조 효과’란 한쪽 끝에는 머리를, 다른쪽 끝에는 발을 수면 위로 내놓고 욕조 안에 누워 있는 사람의 모습에 착안한 용어이다. 곧 인간이 어떤 단어를 기억할 때 욕조 안에 누워 있는 사람처럼 단어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을 가운데 부분에 비하여 더욱 잘 기억하며, 첫 부분과 끝 부분 중에서는 첫 부분을 더욱 잘 기억한다는 것이다.

없다. 노명희(2010)에서도 ‘유티즌(유비쿼터스 + 넷티즌)’과 같이 원형식과 축소어형의 의미가 동일한 것, 즉 통합적 혼성어¹⁵⁾는 두음절어를 포함한 약어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명희(2010: 264~265)에 따르면 약어는 원형식과 공존하여 쓰인 반면에 통합적 혼성어의 원형식은 혼성어가 형성되면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호승(2014: 61~6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형식의 사용 빈도에 따라 약어와 통합적 혼성어를 구별한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어서 설득력이 약하다고 했다. 본고에서 이호승(2014)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사용 빈도로 약어와 통합적 혼성어를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개별 화자에 따라 ‘모티켓’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할 수도 있고 ‘모바일 에티켓’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할 수도 있다. 전자에게는 ‘모티켓’이 혼성어로 인식될 가능성이 큰 반면 후자에게는 약어로 인식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하지만 노명희(2019)는 이호승(2014)을 다시 반박하였는데, 통합적 혼성어와 약어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차원에서 구별될 수 있음을 밝혔다.

- (10) 가. 약어는 원칙적으로 본말이 존재하지만 혼성어는 본말이라 할 수 있는 형식이 따로 없다.
- 나. 약어와 본말은 모두 통용되며 격식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 다. 약어는 본말의 의미초점이 되는 음절을 선택, 혼성어는 의미를 반영하는 형태소 경계를 고려하지 않고 절단되어 형성된다.
- 라. 혼성어는 형성에 관여하는 두 단어 가운데 후행 단어가 혼성어의 기반이 되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다.
- 마. 약어는 본말의 단어나 어절에서 대표음절을 선택하여 형성 되므로 본말의 전체 단어 수나 어절 수에 기반하여 형성되지만 혼성어는 두 단어

15) 노명희(2010)는 두 단어가 통사적 구성을 이루지 못하고 유사한 의미장에 속하는 경우를 계열적 혼성어라고 했고, 두 단어가 통사적 구성을 형성할 수 있으면서 수식관계를 맺는 경우를 통합적 혼성어라고 하였다. 전자의 예로 ‘리뷰이, 갈제비’, 후자의 예로 ‘유티즌, 모티켓’ 등이 있다.

가운데 후행 단어의 음절수에 기반하여 형성된다.

(노명희 2019: 47~48)

여기에서는 노명희(2019)의 5가지 기준으로 이른바 통합적 혼성어와 약어를 구분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10가)와 (10나)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시켜 ‘약어는 본말이 있으며 본말과 통용되는 반면 혼성어는 본말이 없다’로 정리할 수 있다. ‘혼성어는 본말이 없다’는 기준이 ‘라볶이’와 같은 노명희(2010, 2019)에서 다루던 소위 계열적 혼성어에만 적용되고 (8)와 같은 통합적 혼성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유티즌, 모티켓’과 같은 예들에 있어서는 본말이 있는지 본말과 통용되는지를 쉽게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라볶이’는 ‘라면 떡볶이’로 환원할 수 없는 반면에 ‘유티즌’은 ‘유비쿼터스 넷티즌’, ‘모티켓’은 ‘모바일 에티켓’으로 교체해 쓰일 수 있다.¹⁶⁾

본고에서 (10다) ‘혼성어는 의미를 반영하는 형태소 경계를 고려하지 않고 절단되어 형성된다’라는 것을 인정했지만¹⁷⁾ ‘약어는 본말의 의미초점이 되는 음절을 선택하고 절단되어 형성된다’라는 주장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약어에 있어서는 본말의 의미 초점이 되는 음절을 선택하는지 여부를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16) 3장에서 이를 다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17) 이찬영(2016)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찬영(2016: 24)에 따르면 혼성어의 형성 과정에서 내부 구조가 고려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특히 외래어에서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뮤턴트’의 뒷부분인 ‘턴트’는 단일어 ‘탤런트(talent)’가 절단된 결과이며, ‘나뎡’의 ‘뎡’은 ‘캠핑(camping)’의 뒷부분이다. 이 단어의 내부 구조를 고려한다면 ‘camp’와 ‘-ing’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미 외래어의 지위를 얻은 후에 내부 구조가 고려되지 않은 채 절단되었기 때문에 음절화된 ‘뎡’이 형성소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닭돌기’의 ‘돌기’는 ‘비둘기’에서 온 것이데, 이 역시 단일어가 절단되어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고유어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한자어의 경우에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자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한자는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한자가 분석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성분 분석 양상을 고려한다면 한자어도 내부 구조를 무시한 채 절단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박탄주’의 후행 형성어인 ‘폭탄주’는 일차적으로 [[폭탄]주]로 분석되는데, 이때 직접성분인 ‘폭탄’ 내부에서 절단이 발생하여 ‘박탄주’라는 혼성어가 형성되었다.

- (11) ㄱ. 도촬 ← 도둑 촬영
 ㄴ. 돌싱 ← 돌아온 싱글
- (12) ㄱ. 학관 ← 학생 회관
 ㄴ. 남격 ← 남자의 자격
- (13) ㄱ. 축알못 ← 축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
 ㄴ. 축잘알 ← 축구를 잘 아는 사람

(11)의 단어들은 원형식 단어의 첫 음절끼리 결합한 단어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두음절어’¹⁸⁾라고 명명하였다. 비교적 길이가 긴 원형식으로부터 특정 음절을 선택하여 길이가 짧은 단어를 만들 때 언중들은 일반적으로 첫 음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두음절어는 바로 이를 보여준 것들이다. 하지만 두음절어는 첫 음절끼리 결합해 형성된 새로운 단어일 뿐이고 첫 음절이 무조건 의미 초점이 되는 음절이 아니다. (11)과 같이 ‘촬영’, ‘싱글’은 다 외래어이며 대부분 외래어가 한국어에 차용되면서 단일어로 취급되어 형태적 구조가 인식되지 않아 의미 초점이 되는 음절을 선택할 수 없다. 단일어 이외에 한자어도 역시 비슷한 문제가 존재한다. 한자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한자는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약어 ‘학관(학생회관)’을 예로 들면 ‘학생(學生)’과 ‘회관(會館)’라는 2개 한자어 단어에 있어서는 4글자가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어떤 글자가 의미의 중심인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다. (12)의 경우는 첫 음절이 아닌 다른 음절이 새로운 단어의 형성에 참여하였다. (12)의 단어들이 원형식의 첫 음절만을 따서 단어를 만든다면 각각 ‘학회’, ‘남자’가 되는데, 이들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단어와 동일한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첫 음절이 아닌 다른 음절을 선택하였을 뿐이고 의미 초점이 되는 음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다. (13)에서 ‘축알못’과 ‘축

18) 앞에서 밝힌 바 있듯이 본고에서는 ‘두음절어’를 약어의 하위유형으로 본다.

잘알'의 경우 원형식에서 의미 핵심인 '사람'이 축소어형 형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유는 적절히 포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10다)도 통합적 혼성어와 약어의 판별 기준이 될 수 없다.

(10라) '후행 단어가 혼성어의 기반이 되어 단어를 형성한다.'라는 것은 노명희(2019: 46~47)에 따르면 '팩력배(팩트+폭력배), 먹설팅(먹거리+컨설팅)'처럼 후행 단어 '폭력배, 컨설팅'이 의미상의 핵어가 된다는 의미다.¹⁹⁾ 노명희(2010)에서 설정한 통합적 혼성어는 두 단어가 통사적 구성을 형성할 수 있으면서 수식관계를 맺는 경우를 가리킨다. 통합적 구성에 있어서 선행 단어와 후행 단어는 수식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후행 단어가 핵인 것은 틀림없는데 마찬가지로 수식관계를 맺는 구성으로부터 줄여서 형성된 약어도 후행 단어를 기반으로 삼아 형성되어 후행 단어가 의미의 핵어가 된다. 본고의 예(9)은 바로 그 예가 된다. 따라서 (10라)도 약어와 혼성어의 구분 근거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마지막 (10바) '혼성어는 두 단어 가운데 후행 단어의 음절수에 기반하여 형성된다'라는 것은 혼성어의 지배적인 특징인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이러한 형태적 특징으로만 혼성어의 식별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형태적 특성을 혼성어의 식별 기준으로 삼으면 이 특성에서 벗어난 것들을 혼성어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즉 혼성어에서 후행 음절 수 유지 경향이 나타나지 않은 혼성어도 많이 존재함에도²⁰⁾ 후행 단어 음절 수 유지를 혼성어의 판별 기준으로 삼으면 이들을 혼성어의 범주

19) 이찬영(2016)에서 혼성어를 형성어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하면 의미적 핵의 위치에 따라 내심적(endocentric) 혼성어와 외심적(exocentric) 혼성어로 분류된다. 내심적 혼성어란 의미적 핵이 혼성어의 안쪽에 위치하는 유형으로, 후핵 언어인 한국어의 경우 선행 형성소는 후행 형성소를 수식하면서 그 의미를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군나페'는 '카나 페'의 일종이고 '백카프'은 '스카프'의 한 종류이라 '군나페, 백카프'는 다 내심적 혼성어이다. 내심적 혼성어와 반대로 외심적 혼성어는 의미적 핵이 바깥쪽에 위치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개쟁이'는 '베쟁이'의 일종이 아니라 '사람'을 나타내며, '런피스'는 '윈피스'의 부분집합이 아닌 '웃차림'의 한 종류를 뜻하는 것이라 '개쟁이, 런피스'는 외심적 혼성어이다.

20) '폴리티켓(폴리티컬 에티켓), 컴도사(컴퓨터 도사), 디지털(디지털 웹툰), 사이처(사이버 티처)' 등 선행 단어의 음절수에 기반하여 형성된 것도 있고 '에코투아(에콜로지컬 투아), 셰이프슈머(셰이프 컨슈머), 인텔리슈머(인텔라 컨슈머), 컴퓨터피아(컴퓨터 유토피아)'처럼 아예 음절수 제약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역시 존재한다.

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위와 같은 것을 종합해 보면 노명희(2019)에서 제시한 통합적 혼성어와 약어와 5가지 구분 기준으로 여전히 이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본고에서는 노명희(2010)에서 형태적 특성에만 중점을 두고 의미 변화가 생겨지지 않아도 혼성어로 다루던 (8)의 예들을 혼성어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에서 형태적 특성에만 중시하여 혼성어를 규정해 왔지만 기존의 논의 방식으로는 혼성어는 형태만 줄어들었을 뿐 의미 변화가 생겨지지 않는 약어와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혼성어가 다른 개념들과 혼동되어 있으면 서로간의 차이점이 점점 모호해지고 결국 혼성어는 다른 개념들과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며 혼성어라는 용어는 불필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앞에 이미 지적했듯이 김병건(2017)에서는 ‘절단과 합성의 동시 적용’이라는 조어 방법만으로 혼성어를 규정해 아예 혼성어를 두음절어, 약어 등과 같은 것으로 간주했다.

이 장에서 혼성어 개념에 있어서는 혼성어의 형성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미 변화의 중요성을 밝혔다. 따라서 본고에서 혼성어가 형성되면서 수반되는 의미 변화를 혼성어의 판별 기준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 혼성어의 특징 검토

본고는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 혼성어의 대표적인 논의를 뽑아 이들 선행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혼성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이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혼성어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밑줄은 필자 추가)

- (14) 가. 임지룡(1996): 음성적, 의미적으로 관련된 두 언어형식의 일부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새 낱말. 예: 동의적 혼성어(거렁이: 거

지+ 비렁이), 등 위적 혼성어(경라도: 경상도+ 전라도),
연어적 혼성어(시황: 시장 + 상황)

나. 노명희(2010): 두 단어에서 각각 일부를 잘라내고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 예: 계열적 혼성어(레캉스, 개그운서), 통합적 혼성어(유티즌, 모티켓)

다. 이호승(2011): 두 개 이상의 단어에서 그 일부분을 취하여 형성된 단어, 예: 도촬(도둑 촬영), 디카(디지털 카메라), 내외부(내부+외부)

라. 박용찬(2008): 두 개의 단어(또는 형태소)를 합성하여 새로이 만들어 내는 단어, 예: 썩소(썩은 미소)

마. 김병진(2017): '절단과 합성의 동시 적용'이라는 조어 방법을 거쳐 형성된 단어, 예: 미자(미성년자), 강퇴(강제+퇴장), 혼밥(혼자 먹는 밥)

바. 임해연(2015): 2개 이상의 단어나 구, 절 단위가 절단과 결합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가지거나 어휘화된 단어, 예: '떡방, 밀당, 업친야', '깜놀(깜짝 놀라다), 안습(안구에 습기가 차다), 볼매(볼수록 매력이 있다'

(14)를 살펴보면 혼성어를 형성하는 과정에는 혼성어의 입력형(원형식), 형성 과정, 출력형(의미 변화 여부) 3가지 요소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결합되는 음절의 위치만으로 혼성어와 두음절어를 나누는 논의도 흔히 보이기 때문에 결합 위치도 혼성어 논의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혼성어의 4가지 요소로 입력형, 형성 과정, 결합 위치, 출

력형으로 나누어 혼성어의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 (14)의 6개 정의에 따른 혼성어의 4 가지 요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입력형	형성 과정	결합 위치 ²¹⁾	출력형(의미 변화 있는지)
가	두 단어형식	절단+결합	AD, BC ²²⁾	없어도 됨
나	두 단어	절단+결합	AD, ABD, ACD, BD	없어도 됨
다	두 개 이상의 단어	절단+결합	AC, AD, BC, BD, ABD, ACD	없어도 됨
라	두 개의 단어(또는 형태소)	절단+결합	AD, ABD, ACD, BD ²³⁾	없어도 됨
마	한 단어, 두 개나 두 개 이상의 단어, 단어 이상의 단위	절단+결합		없어도 됨
바	두 개 이상의 단어나 구, 절 단위	절단+결합	AC, AD, ABC, ABD, ACD, BC, BD, BC D	꼭 있어야 됨

위와 같은 표에 의거하여 혼성어의 입력형, 형성 과정, 결합 위치, 출력형의 의미 변화 여부 4가지 요소를 절로 나누어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1) 혼성어의 입력형

(1) 혼성어의 입력형은 단어인가 구인가

우선 혼성어의 입력형에 대해서는 혼성어의 입력형이 형태적 구성인가 통사적 구성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쟁을 벌여 왔다. (14가), (14나), (14다)에서는 두 개나 두 개 이상의 단어²⁴⁾로 통일되고 혼성어의 입력형을

21) 연구마다 혼성어의 표기법이 다르지만 여기서 편의상 동일하게 첫 번째 단어를 AB로, 두 번째 단어를 CD로 표기한다.

22) 임지룡(1996)에서 AC는 '머리함성어', BD는 '꼬리함성어'로 간주된다.

23) 박용관(2008)에서 AC를 두음절어로 간주되고 실제적으로 BC의 예는 극히 드물어 혼성어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24) 기존 논의에서 혼성어의 원형식이 '2개 단어'로 한정된 논의가 절반으로 많았고 본고에서도 '2개 단어'로 형성된 혼성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실제 예를 보면 원형식이 3개

단어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14라), (14마), (14바)에서는 혼성어의 입력형을 단어로 한정시키지 않고 단어 이상의 단위로 확대하였다.

혼성어의 입력형이 단어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통사적 구성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행 연구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에 혼성어에 대해 내린 정의에서 사용되었을 뿐 왜 단어인지 아니면 왜 구까지 가능한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혼성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 현상으로써 형태론과 조어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혼성어에 관한 연구는 조어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어의 조어법은 크게 합성법과 파생법으로 나누어진다. 합성이나 파생은 형태소의 결합을 통해 단어를 만듦으로써 단어의 차원에 한정된다. 두 단어를 새 단어 형성의 재료로 한다는 점에서 임지룡(1997), 노명희(2006) 등에서 ‘혼성법’을 ‘합성법’의 일부로 보았다. 이렇게 보게 되면 혼성어도 단어의 차원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혼성어를 이루는데 쓰이는 요소를 온전히 ‘어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혼성어를 합성어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성법’을 ‘합성법’의 일부로 볼 수 없음을 여러 논의에서 지적했다(박용찬 2008; 황진영 2009 등). 박용찬(2008: 125~126)에 따르면 ‘혼성’을 ‘합성+절단’으로 보기 때문에 ‘파생’과 ‘합성’ 가운데 어느 한쪽에 굳이 결부시킨다면 ‘합성’의 한 부류로 볼 수 있지만 ‘혼성’에는 ‘절단’이 반드시 수반되므로 일반적인 ‘합성’과는 크게 차이 나서 혼성을 별도의 단어 형성 방법의 하나로 인정했다. 황진영(2009)은 합성과 파생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단어들에 대한 새로운 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현대 한국어 단어형성원리 중 하나로 혼성법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혼성’도 ‘합성’, ‘파생’과 같이 독립적인 ‘단어 형성법’의 하나로써의 자격을 충분히 인정함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혼성어의 생산성을

단어인 혼성어는 ‘뮤티팬(mu-ti-fan ← music, netizen, fan)’, ‘김버라(← 김치+ 버터+ 라면, ‘힙 록트로니카(← 힙합+록+일렉트로니카)’, ‘아나리오(← 아나운서+리포터 +오디오)’ 등으로 없지는 않다. 혼성어가 갈수록 많아지면서 세 단어 이상에서의 혼성어도 점점 많아질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혼성어의 생산성을 고려해 혼성어의 원형식이 2개 단어로 한정시키지 않고 진행하도록 한다.

고려하면 혼성의 원형식이 단어로 한정될 필요가 없고 구적 구성 등 여러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어에서는 구 구성에서 하나의 어휘로 굳어진 것이 흔히 보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학자마다 ‘어휘화(박진호 1994)’, ‘구의 통시적 단어화(김창섭 1996)’,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이상욱 2004; 송원용 2005)’, ‘통사 구성의 어휘화(구분관 1992, 1998; 최형용 2003)’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논의해 왔다.²⁵⁾ 따라서 혼성어도 마찬가지로 구적 구성에서 하나의 단어로 될 수 없는 이유가 없을 듯하다. 또한 본고는 의미를 중시하여 혼성어를 규정하고자 하므로 혼성어의 원형식이 단어인지 단어 이상의 단위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최신의 흐름에 따라 단어 뿐만 아니라 단어 이상의 단위도 혼성어의 입력형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따라서 본고는 (15)와 같은 단어 이상의 단위로부터 형성된 것들도 혼성어로 보고자 한다.

- (15) ㄱ. 잘생뽀 ← 잘생김 + 예뽀
 ㄴ. 웃프다 ← 웃기다 + 슬프다

(15ㄱ) ‘잘생뽀’는 ‘잘생기고 예뽀’ 사람으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중성적인 외모를 통해 반대 성의 이미지도 고루 갖춘 아름다움’을 나타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냈으므로 혼성어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5ㄴ) ‘웃프다’도 마찬가지로 ‘웃기고 슬프다’의 줄임말이 아닌 ‘웃기면서 슬픈 복잡한 감정이 함께 불러일으켜지는 것’을 말해 혼성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14)와 같은 선행 연구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4마) 김병건(2017)에서는 ‘미자(미성년자), 문센(문화센터)’과 같이 원형식이 한 단어인 경우도 혼성어로 보았다는 것이다. 혼성어의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혼성어는 2개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규정하고 있는데, 김병건(2017)은 한 단어 내

25) 각 용어의 외연과 혼란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송원용(2002/2005: 72~75)에서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본고 내용과 큰 관련이 없어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부에서 발생한 절단과 결합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까지 혼성어로 보아 본고에서는 이들을 혼성어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2) 혼성어의 형성 의도성

혼성어의 입력형에 있어서는 다른 인접 범위와 쉽게 구분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은 혼성어를 형성하는 의도성이다. 즉 혼성어는 기존에 있는 원형식을 줄여서 쓰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살펴보자.

- (16) ㄱ. 아점 ← 아침+점심
- ㄴ. 소맥 ← 소주+맥주

- (17) ㄱ. 엄빠 ← 엄마+아빠
- ㄴ. 치맥 ← 치킨+맥주

(16)과 같이 혼성어로 간주된 예들이 새로운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아점’은 ‘아침과 점심’이 아니라 ‘아침 겸 점심’을 뜻하는 새로운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이다. ‘소맥’도 마찬가지로 ‘소주와 맥주’가 아니라 ‘소주와 맥주를 적절히 섞어 만든 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지칭한 새 단어이다. (16)과 달리 (17)의 예들도 절단과 결합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새로운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경제성을 고려해 기존에 사용되는 원형식을 줄여서 쓰인 말로 본고는 이들을 약어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17ㄴ)은 앞음절끼리 결합해 형성된 것으로 약어의 하위 유형인 두음절어이다. ‘치맥’은 경제성을 고려해 기존에 사용되는 원형식인 ‘치킨과 맥주’를 줄여서 쓰인 말로 새로운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단어 ‘소맥’과 비교된다. 약어가 기존에 있는 원형식을 줄여 쓰인 말로 원형식과 의미 통일성이 있는 반면에 혼성어는 새로운 개념을 지칭하기 위한 의도성이 있으므로 원형식에 비해 의미 변화가 반

드시 생긴다.

상술한 것을 종합해 보면 본고는 혼성어의 입력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가정한다. 첫째는 단어로 한정하지 않은 채 단어 이상의 단위로 확대시킨다. 둘째, 기존에 사용되는 원형식을 줄여서 쓰인 말이 아니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을 지칭하기 위한 의도성을 가진다.

2) 혼성어의 형성 과정 및 결합 위치

(1) 형성 과정

혼성어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14)와 같은 모든 선행 연구에서는 혼성어는 절단과 결합이라는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통일되지만 혼성어 형성에 참여하는 두 단어가 모두 절단 과정을 겪어서 형성된 것과 한 단어만 절단 과정을 겪어서 형성된 것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명칭을 부여해 논의했다.

‘라볶이(라면+떡볶이)’와 같은 혼성어 형성에 참여하는 두 단어가 모두 절단 과정을 겪은 혼성어에 대해 (14가), (14나), (14다)에서 각각 ‘원형적 혼성어’, ‘전형적인 혼성어’, ‘완전 혼성어’로 명칭을 부여했고 ‘차계부(차+가계부)’와 같은 두 단어 중 하나의 단어에만 절단이 적용된 혼성어를 ‘불완전한 혼성어’, ‘불완전 혼성어’, ‘적형적이지 않은 혼성어’로 이름지어 논의했다.²⁶⁾ 반면에 (14라), (14마), (14바)에서는 두 단어 중 하나만 절단이 이루어지든 두 단어가 모두 절단이 이루어지든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혼성어로 지칭했다.

하지만 (14가,나,다)에서는 두 단어 중 하나의 단어에만 절단이 적용된 혼

26) (14)의 논의에 따로 넣지 않았지만 황진영(2009)은 혼성어를 ‘완전 혼성어’와 ‘반 혼성어’로 명명하였다. 황진영(2009)에서는 ‘쌀과라치, 꽃풀이’ 등과 같이 일부 혼성어 형성요소가 단음절이어서 형식적 감소가 불가능한 경우, ‘펼칠, 짬뽕’ 등 본래 다음절인 단어가 축약된 후 혼성의 과정을 거친 경우, ‘김치우드, 카드깡’ 등 유추의 대상이 된 단어와 동일 음절수를 맞추기 위한 경우, ‘서울시파라치, 사이버캠’ 등 형식적 감소를 거칠 경우 원어의 의미를 인지하기 힘든 경우를 형식적 감소를 거치지 않은 이유로 들어 이 단어들을 ‘반 혼성어’로 명명하였다.

성어를 각각 ‘불완전한 혼성어’, ‘불완전 혼성어’, ‘적형적이지 않은 혼성어’로 명명했는데도 이들은 혼성어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아닌, 결과적으로 이들을 모두 혼성어의 범주에 넣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찬영(2016: 25)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두 단어가 모두 절단 과정을 거치는지 여부에 따라 혼성어를 ‘원형적 혼성어’와 ‘불완전한 혼성어’로 나누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결과이며 혼성어의 형성에 대한 인지적 측면을 고려하면 혼성어 형성에 참여하는 두 단어가 모두 절단 과정을 겪는지 아니면 한 단어만 절단 과정을 겪어서 형성된 혼성어들을 동일한 경향에 의한 것으로 파악했다.²⁷⁾

본고는 이찬영(2016)의 입장을 받아들여 두 단어가 모두 절단 과정을 겪는지 아니면 한 단어만 절단 과정을 겪어서 형성된 것인지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모두 혼성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오히려 이들을 따로 구분했을 때 혼란에 빠지기 쉽다고 판단되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일하게 혼성어로 부르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2) 결합 위치

결합 위치도 혼성어 논의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이며 이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결합 위치를 혼성어의 판별 기준을 삼았던 논의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혼성어의 결합 위치에 대해서는 주로 ‘AC형’을 두음절어로 보는지 혼성어로 보는지를 중심으로 토론을 전개한다. (14가), (14라)에서는 AC형을 두음절어로 보아 혼성어에 대상에서 제외시킨 반면에 (14다), (14바)에서는 AC형을 혼성어로 간주했다. 또한 (14나)에서 앞음절끼리 혼성된 형태가 두

27) 이찬영(2016)에서 혼성어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적 현상들을 관찰함으로써 이들이 인간의 인지 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음절 수리는 요인의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혼성어 형성은 크게 절단 및 결합 과정으로 나뉘는데, 절단 과정은 단어의 내부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결합 과정은 앞 단어의 앞부분 또는 전체와 뒤 단어의 뒷부분이 결합된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인지적으로 가장 잘 기억되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남겨 둬으로써 원래 단어의 형식과 의미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혼성어는 대부분 후행 형성어의 원래 음절 수와 동일한 음절 수를 지니는데, 이를 ‘음절 수 유지’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음절 수가 어휘부에서의 어휘 내향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음절어인지 혼성어인지는 구별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결국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로 남아 있었다.

구제적으로 보면 결합되는 음절 위치에 대해 (14가) 임지룡(1996)에서는 음성과 의미의 측면에서 연관된 $\alpha(wx)$ 와 $\beta(yz)$ 두 낱말의 한 요소가 결합되는 경우가 wy, wz, xy, xz 의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α 의 선행요소와 β 의 후행요소, 혹은 α 의 후행요소와 β 의 선행요소가 결합된 wz, xy 은 혼성어로 보고 wy 형은 ‘머리합성어’라 하고 xz 형은 ‘꼬리합성어’라 하여 혼성어와 구별하였다.²⁸⁾ 이 과정에서 두 단어 중 하나에서만 절단이 이루어진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 두 단어의 앞음절끼리 혼성된 ‘ wy ’와 뒷음절끼리 혼성된 ‘ xz ’를 혼성어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최형용(2003)에서는 합성어는 형식적 증거라는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태적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 wy, xz ’를 합성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4나) 노명희(2010)에서는 두 단어 ‘AB’와 ‘CD’의 결합 중 ‘AD, ABD, ACD, BD’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만을 혼성어로 분류했다. 노명희(2010: 262)에서 앞음절끼리 혼성된 형태를 두음절어로 보는지 혼성어로 보는지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두음절어는 원래의 단어나 구가 갖는 의미와 줄어든 형식의 의미가 같은 반면 혼성어는 두 단어의 특성을 모두 가진 새로운 대상을 지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명희(2010)에서는 계열적 혼성어만 의미 변화가 생겨서 두음절어와 구별될 수 있는 반면 통합적 혼성어는 의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들이 두음절어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14다) 이호승(2011: 98)에 따르면 통합적 관계를 가지면서 AD형태를 가진 혼성어가 존재하므로 혼성어에 대립되는 두음절어는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AC’형의 단어를 ‘두음절어’로 보아 혼성어와 구분했지만 본고는 단순히 결합되는 음절의 위치만으로 혼성어와 두음절어를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이 있다.

28) 위에 표에서 편의상 동일하게 첫 번째 단어를 AB로, 두 번째 단어를 CD로 표기했지만 여기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임지룡(1996)에서의 표기법으로 다시 바꾸어 설명하도록 한다. 임지룡(1996)은 선·후행 단어에 대해 $\alpha(wx), \beta(yz)$ 로 표기하며 wy (머리 합성어), xz (꼬리 합성어)로 처리하고 있다.

우선, 결합하는 위치로 혼성어와 두음절어로 구분되면 그럼 모든 혼성어와 두음절어는 똑같은 양상을 보여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아점(아침+점심)²⁹⁾’과 같은 경우엔 앞 단어의 앞 부분과 뒤 단어의 앞 부분을 결합해 형성된 AC형이지만 ‘아침도 점심도 아닌 그 중간에 먹는 밥’을 가리키는 말로 새로운 지칭 대상으로 되어 의미 변화가 없는 두음절어보다는 새로운 의미가 생긴 혼성어로 간주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 ‘엄빠(엄마+아빠)’는 앞 단어의 앞 부분과 뒤 단어의 뒤 부분을 결합해 형성된 AD형이라 결합 위치로 따져본다면 혼성어로 간주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엄빠’는 ‘엄마’와 ‘아빠’를 줄여서 쓰인 말로 의미 변화가 생기지 않는 두음절어로 간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로부터 다른 양상을 보인 예들의 존재로 인해 결합 위치는 혼성어와 두음절어의 판별 기준으로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기존에 있는 단어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결합 위치를 기준으로 혼성어를 규정했다. 하지만 ‘혼성’이 점점 ‘파생’과 ‘합성’과 같이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형성법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현재 한국어에서 혼성어의 형성이 매우 생산적이어서 다른 양상을 보인 혼성어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³⁰⁾ 본고는 두 단어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우는 혼성어로 형성

29) 임지룡(1997: 328)에서 ‘아점’은 머리합성어로 처리하였고 박용찬(2008)에서 두 단어의 앞부분을 취하는 ‘아점, 점저’와 같은 경우를 혼성어에서 제외하며 두음절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진영(2009)은 생략에 의한 두자어로 볼 수 있다고 하여 논의에서 배제하였다. 김혜지(2016)에서는 축약형 단어로 다루었다. 시정곤(2007), 임해연(2015), 이선영(2016가)에서는 ‘아점’을 혼성어로 처리하였다. 본고의 입장에 따르면 ‘아점’이 새로운 의미를 생겨서 혼성어로 넣어야 한다.

30) 이찬영(2016: 58)에 따르면 혼성어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그 결합 양상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찬영(2016)은 선·후행 단어에 대해 X(AB), Y(CD)로 표기했다. 이찬영(2016)에서 혼성어의 결합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 결과는 본고의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다.

결합 유형	개수(개)	비율(%)
AD	252	52.17
XD	203	42.03
AD/XD	6	1.24
AY	8	1.66
BD	6	1.24
BC	2	0.41
AD/AY	2	0.41
기타	4	0.83
합계	483	100

될 수 있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³¹⁾ 즉 ‘AC, AD, ABC, ABD, ACD, BC, BD, BCD’와 같은 모든 형태가 모두 혼성어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로 한다.³²⁾

3) 혼성어의 출력형

혼성어의 출력형에 대해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관점이 있지만 대부분 논의에서는 주로 혼성어가 형성될 때 수반되는 형태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혼성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새로운 의미의 파생을 부차적인 것으로 처리했다. (14가), (14나), (14다), (14라), (14마)는 모두 새로운 의미 파생 여부가 혼성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과 달리 (14바) 임해연(2015)에서는 의미 변화를 혼성어의 가장 중요한 판별 기준으로 삼았다.

출력형의 의미 변화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14가) 임지룡(1996: 4)에 따르면 혼성의 결과는 의미상으로 두 개념의 물리적 총화와 화학적 총화로 나눌 수 있고 두 단어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³³⁾과 제3의 대상으로 된 말을 모두 혼성어로 보았다. (14나) 노명희(2010)에서는 ‘라볶이’와 같이 두 단어가 갖는 지시 대상과 관련된 속성을 모두 수용한 계열적 혼성어를 전형적인 혼성어로 보고 ‘유티즌’과 같이 원형식과 축소어형의 의미가 동일한 통합적 혼성어를 비전형적인 혼성어로 보아 결과적으로 의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혼성어에 포함했다. (14다) 이호승(2011)에서는 혼성어가 형성될 때 수

31) 기존 논의에 따르면 혼성어 중에서 ‘AD’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고 혼성어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황진영(2009: 19~20)에 따르면 전체 586개의 혼성어 중 ‘AD’형이 3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본고에서 ‘AD’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혼성어의 판별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32) 이호승(2011: 89)에 따르면 ‘ABC, BCD’형은 한국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기존에 있던 단어를 분석하는 반면에 본고에서 혼성어의 강한 생산성에서 출발하여 미래에 혼성어가 다양한 형태로 생성될 것으로 추측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주장은 임해연(2015: 23)과 일맥상통한다.

33) 임지룡(1996)에서는 인명, 지명, 학교명, 회사명 등 두 단어의 일부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그냥 두 단어를 아울러 이르는 것도 혼성어로 보았다.

반되는 절단과 결합 과정에만 집중하고 원형식과 축소어형 사이의 의미적 동일성 여부를 혼성어의 식별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14라, 14마)도 비슷한 맥락으로 새로운 의미 파생 여부가 혼성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될 수 없다고 했다. 정리하면 (14가, 나, 다, 라, 마)의 논의에서는 주로 형태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혼성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새로운 의미의 파생을 부차적인 것으로 처리했다.

이들과 반대로 본고에서는 (14바) 임해연(2015)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미 변화를 혼성어의 판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³⁴⁾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미 변화를 혼성어의 판별 기준으로 삼아야 혼성어를 새로운 단어 형성 기제로 볼 수 있으며 혼성어는 약어와 구분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의미 변화에 수반되는 혼성어 출현형의 또 다른 특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혼성어가 반드시 의미 변화가 생겨져야 형성된 것으로 원형식으로 환원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³⁵⁾ 다음과 같은 예들을 통해 살펴보자.

- (18) ㄱ. 라볶이 ← 라면+ 떡볶이
- 나. 칼제비 ← 칼국수+ 수제비

- (19) ㄱ. 유티즌 ← 유비쿼터스 + 네티즌

34) 본고에서는 임해연(2015)에서 의미 변화를 혼성어의 가장 중요한 판별 기준으로 삼는 것을 동의하지만 ‘깜놀(깜짝 놀라다), 안습(언구에 습기가 차다), 볼매(볼수록 매력 있다) 등 ‘하다’ 또는 ‘이다’와 결합하여 어기화된 것도 혼성어를 보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깜놀’을 예로 들면 임해연(2015)에서 ‘깜짝 놀라다’의 줄임말로써 원형식과 의미 동일성이 있는데도 ‘깜놀하다, 깜놀 상황’처럼 통사적 구성이 어휘화되어 어휘부로 넘어온 것은 문장 차원의 의미가 단어 차원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깜놀’은 단순히 줄임말로 볼 수 없고 혼성어로 보았다. 본고에서도 ‘깜놀’처럼 어휘화된 예들이 단순한 줄임말로 볼 수 없다고 동의하지만 혼성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의미 변화를 혼성어의 가장 중요한 판별 기준으로 삼는데 ‘깜놀’과 같은 예들이 원형식과 의미 변화가 생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특성이 서로 다른 것들이 혼성어 범주 안에서 함께 다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임해연(2015)에서 혼성어로 본 ‘깜놀, 안습, 볼매’ 등 어기화된 것들을 혼성어 대상에서 빼기로 하고 ‘어휘화’의 예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후고에 자세히 다룰 것이다.

35) 이 문제에 대해 노명희(2010), 이선영(2016)에서도 제시한 바 있다.

나. 모티켓 ← 모바일 + 에티켓

노명희(2010)에서 (18)의 예들을 계열적 혼성어로 (19)의 예들을 통합적 혼성어라고 했다. 본고에서는 (18)의 예들만 혼성어로 보고 (19)의 예들은 원형식과 의미상으로 차이가 없는 이유로 혼성어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8)과 (19)의 예들을 대비해 보면 ‘라볶이’와 같은 혼성어는 ‘라면 떡볶이’로 환원할 수 없는 반면에 ‘유티즌’과 ‘모티켓’은 각각 ‘유비쿼터스 네티즌’, ‘모바일 에티켓’으로 교체해 쓰일 수 있는 차이가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본고는 혼성어의 출력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가정한다. 첫째는 반드시 새로운 의미를 파생시켜야 하는 것이며 둘째는 원형식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혼성어의 개념 재정립

이 장에서 제3장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혼성어의 개념을 재정립할 것이다.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본고에서 혼성어의 판별 기준으로 삼은 ‘의미 변화’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혼성어와 관련되는 의미 변화라는 기준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므로 의미의 변화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단어들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미 변화’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예들이 혼성어로 간주되어야 할지를 판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 (20) 가. 업친아(엄마 친구 아들)
 나. 떡방(먹는 방송)
 다. 떡튀(먹고 튀다)
 르. 밀당(밀고 당기다)

(20ㄱ)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을 줄여 이르는 말로서 ‘집안, 성격, 머리, 외모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완벽한 남성’이라는 비유적 의미가 생겨나서 의미 변화를 발생하는 점에서 보면 혼성어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엄친아’의 형성 과정을 보면 본고의 혼성어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리볶이’를 예로 들면 ‘라면’과 ‘떡볶이’ 두 단어에 의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새로운 단어로 나타난 반면에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의 줄인 말로서 처음에는 부모들이 자식을 나무랄 때 ‘엄마 친구 아들 ○○이는 이번에도 장학금 받는다더라.’, ‘엄마 친구 아들 ○○이는 학교 홍보 모델도 한다더라.’ 등과 같이 친구의 자식과 비교하던 것에서 시작된 단어로서 원형적인 ‘엄마 친구 아들’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즉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구는 ‘엄마가 이는 친구의 아들’이라는 뜻과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엄친아’라는 단어가 활발하게 쓰여짐에 따라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이라는 의미로 굳어지고 있으며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구는 오히려 ‘완벽한 남자’라는 뜻을 상실해 단순히 ‘엄마가 이는 친구의 아들’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21) 가. 철수는 엄마 친구 아들이다.

나. 철수는 엄친아이다.

(21가)는 ‘철수는 엄마가 이는 친구의 아들이다’와 ‘철수는 완벽한 남자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에 (21나)는 ‘철수는 완벽한 남자’로만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엄친아’가 의미 변화가 있는데도 처음 생성될 때부터 새로운 의미로 생성된 것은 아니라 약어로 형성된 후 의미 확대가 일어난 경우이며 이러한 예들을 혼성어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³⁶⁾

36) 이호승(2011). 임해연(2015)에서 본고와 다른 입장을 취해 ‘엄친아’를 혼성어로 보고 있다. 한은실(2010)에서 본고와 같이 ‘엄친아’를 혼성어로 보지 않지만 세 개 이상의 단어에서 절단과 결합이

(20나)의 ‘떡방’도 혼성어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먹는 방송’의 줄임말로써 처음에는 ‘출연자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주로 보여 주는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뜻으로 의미 변화를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떡방’이라는 단어가 활발하게 쓰여짐에 따라 단순히 ‘먹는 방송’이라는 뜻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표현할 때도 ‘떡방’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22) 가. 그 사람이 인터넷에서 떡방을 해서 점점 유명해진다.

나. 야,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너 떡방하니?

(22가)에서 ‘떡방’은 단순히 ‘먹는 방송’의 줄임말로써 의미 변화가 생겨지지 않는다. 이와 달리 (22나)는 ‘먹는 방송’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일컬어 ‘떡방’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떡방’이라는 말은 ‘먹는 방송’으로 환원할 수 없는 것으로 의미 변화에 수반하여 혼성어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떡방’처럼 처음에는 단순히 ‘먹는 방송’의 줄임말로써 쓰이다가 2차적인 의미를 파생시킨 것은 혼성어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³⁷⁾

(20다) “떡튀”는 “먹고 튀다”를 줄여서 이르는 말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빠지는 일이나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먹고 튀다’는 ‘먹고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의 뜻으로 쓰인다. ‘떡튀’의 경우 원형태와 줄어든 형태가 의미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편이었다. 하지만 ‘떡튀’는 사람들에게 많이 받아들여지면서 스포츠계에서 많이 사용되어 ‘계약금과 연봉을 많이 받고 이적한 선수가 기대만큼의 활약을 하지 못하는 선수’라는 의미를 새로 파생시켜 뜻

일어나 형성된 새 단어는 혼성어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를 본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편선영(2021)에서도 본고와 같은 입장을 취해 ‘엄친야’를 혼성어로 보지 않았지만 이유는 혼성어는 원형식을 상정할 수 없지만 ‘엄친야’의 경우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원형식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역시 형태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된 결과이며 새로운 의미의 파생은 혼성어의 판별 기준으로 삼았던 본고와 다르다.

37) 이호승(2011), 임해연(2015)에서 본고와 다른 입장을 취해 ‘떡방’을 혼성어로 보고 있다. 노명희(2019)에서 ‘떡방’을 약어로 보고 있다.

이 점점 확대되어 있다. ‘떡튀’도 ‘떡방’과 같이 처음 생성될 때부터 새로운 의미로 생성된 것은 아니고 줄임말로 쓰이다가 의미 확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혼성어로 볼 수 없다.

‘엄친아’, ‘떡방’, ‘떡튀’처럼 처음에는 단순히 줄임말로써 쓰이다가 많이 쓰이게 되면서 2차적인 의미를 파생시킨 것과 달리 (20리) ‘밀당’은 다른 양상을 보인 예로 볼 수 있다. ‘밀당’은 ‘밀고 당기다’를 줄여서 이르는 말로 처음 생길 때부터 관용 표현 ‘밀고 당기다’의 의미인 ‘남과 실랑이를 하다’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연인들의 심리 싸움’이라는 비유적 의미로 쓰인다. 그리고 ‘밀당’은 처음에는 남녀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인데 많이 쓰이다가 점점 남녀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으로 국한되지 않고 ‘엄마와 아들의 밀당, 학생이 선생님과의 밀당, 공부와의 밀당’ 등처럼 뜻을 다시 원형식 ‘밀고 당기다’의 의미 ‘남과 실랑이를 하다’로 복원했다. ‘처음 생성될 때부터 새로운 의미로 생성된 것’이라는 기준으로 따지면 ‘밀당’은 혼성어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을 듯하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밀당’도 처음 생성될 때부터 새로운 의미로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스러워 ‘밀당’은 혼성어로 보지 않기로 한다.³⁸⁾ ‘밀고 당기다’라는 관용적 표현에 이미 ‘연인들 사이에서의 미묘한 심리 싸움’이라는 비유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결론을 말한다면 본고에서는 ‘엄친아’, ‘떡방’, ‘떡튀’, ‘밀당’과 같은 단어들은 ‘리뷰이’처럼 처음 생성될 때부터 새로운 의미로 생성된 것은 아니고 원형식을 줄여서 약어로 형성된 후 의미 확대가 일어난 경우는 혼성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즉 혼성어 판별 기준에 있어서 일차적인 의미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혼성어의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38) ‘밀당’과 ‘떡튀’에 대해 이선영(2016)에서는 본고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밀당’은 ‘밀고 당기다’라는 원말이 존재하는 반면에 ‘떡튀’는 ‘먹고 튀다’라는 원말이 따로 쓰이지 않아서 ‘밀당’을 약어로, ‘떡튀’를 ‘혼성어’로 보아 둘을 구분시켰다.

(23) 혼성어의 형성 과정

- ① 혼성어는 새로운 개념을 지칭하기 위한 의도성을 가지며 원형식이 2개 단어로 국한되지 않고 단어 이상의 단위도 혼성어의 원형식이 될 수 있다.
- ② 혼성어는 형성 단어가 모두 절단되느냐 그 중 하나만 절단이 이루어지느냐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 ③ 결합 위치를 가리지 않고 두 단어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우는 혼성어로 볼 수 있다.
- ④ 반드시 처음 생성될 때부터 새로운 의미로 생성된 것은 혼성어로 볼 수 있으며 혼성어는 원형식으로 환원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혼성어의 형성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입력형	형성 과정	출력형
(1) 새로운 개념을 지칭하기 위한 의도성 (2) 2개 이상 단어나 단어 이상의 단위	절단 + 결합	(1) 일차적인 의미 변화 (2) 원형식으로서의 환원 불가능

이상의 모든 논의에 의거하여 본고에서 혼성어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혼성어란 어떤 새로운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2개 단어나 단어 이상 단위 중 한 단어 혹은 모든 단어의 일부분을 절단하고 결합하여 처음 생성될 때부터 새로운 의미로 생성된 단어이다. 혼성어는 원형식의 의미와 동일하지 않으며 원형식으로서의 환원이 불가능하다.

5. 결론

지금까지 혼성어 개념에 있어서 혼성어의 형성 과정에 수반되는 의미 변화의 중요성을 밝혔고 기존 연구에서 형태적 특성에만 집중하여 혼성어를 다루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단어 형성 기제로서의 혼성어의 개념을

재정립했다. 본고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고는 혼성에 수반되는 의미 변화를 혼성어의 판별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밝혔다. 본고에서 지금까지 혼성어에 관련된 대부분 논의에서 혼성어의 형성 과정에서 수반되는 형태적 특성에만 집중하고 혼성어에 수반되는 의미 변화를 부차적인 것으로 처리하면서 혼성을 새로운 단어 형성 기제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혼성을 새로운 단어 형성 기제로 인정하려면 의미 변화를 전제로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미 변화가 혼성어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적용해야 혼성어는 형태만 줄어들었을 뿐 의미 변화가 생겨지지 않는 약어와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3장에서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혼성어를 형성하는 과정에는 입력형, 형성 과정, 결합 위치, 출력형의 4가지 요소로 나누어 하나씩 살펴보았다. 4장에서 선행 연구에서 혼성어와 관련되는 의미 변화라는 기준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므로 의미의 변화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단어를 존재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떡방’과 같은 단어는 ‘리뷰이’처럼 처음 생성될 때부터 새로운 의미로 생성된 것은 아니라 약어로 형성된 후 의미 확대가 일어난 경우를 혼성어로 보지 않고 혼성어 형성에 수반되는 의미 변화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처음 생성될 때부터 새로운 의미로 생성된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혼성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혼성어란 어떤 새로운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2개 단어나 단어 이상 단위 중 한 단어 혹은 모든 단어의 일부분을 절단하고 결합하여 처음 생성될 때부터 새로운 의미로 생성된 단어이다. 혼성어는 원형식의 의미와 동일하지 않으며 원형식으로서의 환원이 불가능하다.

본고는 ‘의미 변화’를 혼성어의 판별 기준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했는데 ‘의미 변화’라는 기준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될 경우가 많을 듯하다. 가령 ‘엄빠’를 ‘엄마와 아빠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의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엄빠’를 ‘부모’라고 이해한 사람에게는 의미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가능성이 클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는 적어도 혼성어의 개념에 있어서 의미 변화의 중요성을 밝히는 데 만족하였다. 또한 혼성어의 특이한 결합 양식에 대하여 유추·대치 차원에서의 초점화된 논의가 다뤄질 필요성이 있는데 본고에서 이에 대해 다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다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여 이들 문제에 대하여 더 면밀히 살피고 이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구분관, 『조어 능력과 조어법 연구 방법론』, 『언어의 이론과 분석』 (1), 태학사, 2002, 129~174쪽.
- 강은경, 『국어 혼성어에 대한 기술적 연구: 음운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언어연구』 26, 한국현대언어학회, 2011.
- 곽유석, 『혼성어 형성에 관한 소고』, 『형태론』 19.1, 2017, 1~24쪽.
- 김계옥, 『현대 국어의 혼성어 형성법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영준, 『최적성이론을 통한 혼성어 형성의 분석』,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9-3, 한국음운론학회, 2013.
- 김진아, 『신어에서 축소어의 양상 변화』,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충청북도, 2016.
- 김창섭,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國語學叢書』 21, 太學社, 1996.
- 김혜지, 『축약형 단어와 유추』, 『형태론』 18.2, 2016, 183~215쪽.
- 노명희, 『혼성어 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국어학』 58, 국어학회, 2010.
- _____, 『신어에 나타나는 약어의 특징과 통합적 혼성어』, 『국어학』, 2019, 27~56쪽.
- 박용찬,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관한 일고찰』, 『형태론』 10-1, 도서출판 박이정, 2008.
- 박진호,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國語研究』 123), 1994.
- 송원용, 『활용형의 단어 형성 참여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_____,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국어학총서』 50, 태학사, 2005.
- _____, 『국어의 단어형성체계 재론』, 『진단학보』 104, 2007, 105~126쪽.
- _____, 『형태론 연구의 쟁점과 전망』, 『한국어학』 48, 2010, 1~44쪽.
- 시정곤, 『국어의 단어 형성 원리』, 『한글』 223, 한글학회, 1994.
- 오규환, 『단어 형성 과정으로서의 어휘화』, 『국어학』 68, 국어학회, 2013.
- 이상욱, 『‘-음’, ‘-기’ 명사형의 단어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國語研究』 173), 2004.
- 이선영, 『신어에서의 약칭어와 혼성어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0.41, 2016, 269~291쪽.
- 이은섭, 『형식이 삭감된 단위의 형태론적 정체성』, 『형태론』 9-1, 2007.
- 이재현, 『현대 국어 축소어형의 사용 양상 연구』,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10.
- 이찬영, 『혼성어 형성에 대한 인지적 고찰』, 『형태론』 18.1, 2016, 1~27쪽.
- 이호승, 『절단어와 혼성어에 관련된 몇 문제』, 『개신어문연구』 33, 개신어문학회, 2011.
- _____, 『국어 혼성어와 약어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 39, 개신어문학회, 2014.
- 양명희·박미은, 『형식 삭감과 단어형성법』, 『우리말 글』 64, 2015, 1~25쪽.
- 임지룡, 『혼성어의 인지적 의미분석』, 『언어과학연구』 13, 언어과학회, 1996.
- _____,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1992.
- _____,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
- 임옥정, 『한국어 약어 유형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2016.
- 임해연, 『현대 국어 혼성어의 개념과 형성 원리』, 국내석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大學院, 서울, 2015.
- 정한데로, 『규칙(規則)과 유추(類推), 다시 생각하기』, 『어문연구(語文研究)』 44.3, 2016, 99~126쪽.
- 채현식, 『유추에 의한 복합 명사 형성 연구』, 『국어학총서』 46, 태학사, 2003.
- _____, 『대치(代置)에 의한 단어형성』, 『형태론』 5.1, 2003a, 1~21쪽.

최형용,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국어학회, 2003.

_____, 『단어형성과 음절수』, 『국어국문학』 138, 국어국문학회, 2004.

_____, 『파생어 형성과 빈칸』, 『語學研究』 40.3, 2004b, 619~636쪽.

_____, 『한국어 연구와 유추』. 서울: 역락, 2015.

편선영, 『현대 한국어 혼성어의 형성과 특성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경기도, 2021.

황진영, 『현대국어 혼성어 연구 - 단어형성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對混成語概念的再檢討

楊靜靜*

混成詞是由兩個或多個詞組合而成的具有混合意義的詞。現在混成詞的形成是一個非常活躍的構詞過程，因此引起了很多研究者的關注。在目前的討論中，混成詞同時經歷了“切斷”和“結合”兩種形式上的操作而形成，這點與傳統的韓國造詞法“合成”或“派生”不同，因此混成詞被看作一種新的造詞法。然而，迄今為止的討論大多把重點放在了混成詞的形成過程中伴隨的形態特征上，意義的變化被視為次要的。但是要想把混成詞看做一種新的造詞法，必須把混成詞的意義變化作為前提。先前的研究中一邊把混合詞看做一種新的造詞法，一邊將意義變化視為次要的，互為矛盾。另外，用形態特征來定義混成詞，不可避免地會導致混成詞與其他概念混淆。因此，在定義混成詞時，最好將意義的變化視為最重要的。

關鍵字：造詞法，(一次的)意義變化，混成詞，略語，入力形，形成過程，結合位置，出力形

논문투고일 : 2022년 1월 13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2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2월 18일

* Inha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docter

